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7



Contents

※ 2026.04.23.(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4.16.~2026.04.2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우원식 의장, 미래세대 탄소중립 로드맵에 국회 입법 응답 강조 (2026.04.16)1
- 전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난항, 지방정부 권한 이양 촉구 (2026.04.22)1
- 광주시,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 탄소중립포인트 1만점 지급 (2026.04.22) 2
- 평택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2026.04.22) 2
- 영주시, 지구의 날 기념 소등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유도 (2026.04.22) 2
- 시흥시, 지구의 날 맞아 10분간 자율 소등 행사 추진 (2026.04.22) 3
- 성주군, 생활개선회 농약빈병 3,260kg 수거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21) 3
- 청양군, 먹거리직매장에서 지역 상생·탄소중립 플리마켓 개최 (2026.04.21) 4
- 안양그린마루,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 운영 (2026.04.21) 4
- 제주도, 고유가 추경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탄소중립 실천 점검 (2026.04.20) 5
- 고양특례시, 지구의 날 맞아 소등 행사 및 서예 퍼포먼스 개최 (2026.04.20) 5
-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6.04.20) 5
- 삼척시,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2026.04.19) 6
- 성동구, 제5회 '하나뿐인 지구' 행사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6.04.19) 6
- 평창군, 기후변화 주간 맞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진행 (2026.04.20) 7

- 광명시,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 참여 단지 모집 (2026.04.16)7

-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3기 발대식 개최 (2026.04.16)7

▪ AI 분야 8

- 한·베트남, 원전·AI·문화 등 12건 MOU 체결로 협력 확대 (2026.04.22)8

- 이 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조선·금융·AI·방산 협력 확대 합의 (2026.04.20)8

- 경북도, AI 기반 데이터센터 탄소저감 기술 개발 국책사업 선정 (2026.04.22)9

- 관악구, AI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대 (2026.04.17)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0

▪ 탄소중립 분야 10

- 기보, '넷제로멤버스'에 엘파워텍 선정하여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2026.04.22)10

- 축산물품질평가원, 창립 37주년 맞아 탄소중립·안전 경영 선포 (2026.04.20)10

- KTR, 산업단지 MRV 플랫폼 검증 업무협약 체결 (2026.04.16)10

-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에 탄소중립·중대재해 반영하는 ESG 고도화 착수 (2026.04.21) 11

- 대구지방환경청, 통합허가 사업장 대상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개최 (2026.04.21) ..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2

▪ 탄소중립 분야 12

- 롯데백화점 전주점, 자연보호 전북자치도협의회와 탄소중립 실천 협약 (2026.04.22) · 12
- 애니텍, 인도 JK Cement와 탄소중립 MOU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공식화 (2026.04.22) 13
- 한·일 레미콘업계, 판매구조·탄소중립 등 산업 현안 공동 논의 (2026.04.20) 13
- 현대로템, 철도차량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대응 가속 (2026.04.17) 14
- 현대백화점그룹, 용인에 '탄소중립의 숲' 확대 조성 (2026.04.16) 14
- 애니캠·신호산업, 재활용 가능 컵라면 종이용기 개발로 탄소중립 기여 (2026.04.16) ..14
- 애플, 재활용 소재 30% 달성하며 탄소중립 향한 혁신 지속 (2026.04.19) 15
- 한국교통대, 의료 분야 탄소중립·ESG 인재 양성 협약 체결 (2026.04.20) 15
- 바이오차, 탄소중립 농업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 (2026.04.22) 16

▪ AI 분야 16

- AI 시대 원자력의 역할 논의, '2026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 부산 개막 (2026.04.22) 16
- 관광벤처 100곳 선정, AI·K-컬처 접목 혁신 서비스 부상 (2026.04.22) 17
- 네이버, 인도 최대 IT서비스 기업 TCS와 AI·클라우드 협력 MOU 체결 (2026.04.21) 17
- 오픈시, 노르웨이 '스타게이트' 사업에서도 이탈, MS가 데이터센터 계약 (2026.04.16) 18
-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 '스팟', 구글 제미니 AI 로봇틱스 탑재로 자율 행동 능력 확보
(2026.04.16) 18
-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AI 군사 활용의 위력과 한계 (2026.04.17) 1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우원식 의장, 미래세대 탄소중립 로드맵에 국회 입법 응답 강조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론화위원회 백서 전달 및 미래세대 대표 면담'에 참석하여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이 참여한 기후위기 공론화 성과를 공유받고 정책 제언을 청취한 자리임. 1만 명 규모의 기초조사와 5개 권역별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백서가 전달됨. - 국회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시민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 표명. - 우 의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함.
<p>지자체</p>	<p>☐ 전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난항, 지방정부 권한 이양 촉구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6억3900만t으로 목표치(5억8210만t)를 약 5700만t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석유화학·정유 산업 밀집 지역의 감축 성과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체와 산업부문 전환 지연이 3년간 지속된 상황. - '2026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집행권 부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데이터 기반 탄소 회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전남도의 2030년 감축목표 47.5% 달성 전망도 비관적임. - 참석자들은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밀집 지역의 감축 실패가 국가 전체 탄소중립 실패로 직결된다는 결론 도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광주시,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 탄소중립포인트 1만점 지급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과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 탄소중립포인트 1만점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 추진. -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한 '광주형 에너지 분권' 모델로 평가 받음. 2015년부터 약 5300세대에 미니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온 실적이 기반이 됨. - 광주시는 5월부터 주택용(3kW) 태양광 보급 시 3만점 포인트 제공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월 평균 약 45kWh 전기 생산으로 월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됨.
지자체	<p>□ 평택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합동 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함. 정장선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수,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할 계획. - 1부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2부 심의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함.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6개 부문 31개 세부 사업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실적 보고. - 정장선 시장은 “기업,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실행력을 높이고 평택시 특화모델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발언함.
	<p>□ 영주시, 지구의 날 기념 소등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유도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가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시민 참여형 소등 행사를 추진함. 시청 등 공공기관은 건물 내·외부 조명과 전자기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전원을 차단하고, 공동주택과 일반 가정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동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소등을 통해 약 5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8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함. 일상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확산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 -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소등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언함.
	<p>□ 시흥시, 지구의 날 맞아 10분간 자율 소등 행사 추진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가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율 소등 행사를 진행함. 시흥시청, 시흥도시공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등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 -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무실과 가정에서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로 기획됨. - 양순필 환경국장은 “10분간의 소등은 짧은 시간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중한 실천”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함.
	<p>□ 성주군, 생활개선회 농약빈병 3,260kg 수거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군 생활개선연합회 회원 278명이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농약빈병 수거 활동을 실시함. 총 3,260kg의 농약빈병을 수거하여 환경관리공단 성주군중간처리사업소에 전달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읍·면 회원이 영농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결과임. - 이번 활동은 탄소중립 영농기술 확산과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됨. 5년간 이어온 농약빈병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농촌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사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군 관계자는 “마을단위 작은 조직부터 자발적 참여가 확산될 때 탄소중립 실천이 현실화된다고” 발언하며,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방침을 밝힘.
	<p>□ 청양군, 먹거리직매장에서 지역 상생·탄소중립 플리마켓 개최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군이 25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 먹거리 직매장 1호점 앞마당에서 지역 상생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을 개최함. 수제 디저트, 빈티지 의류, 수공예품 판매와 축산물 최대 30% 할인 행사 등을 운영. -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 장바구니·다회용기 지참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로컬푸드 소비가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친환경 소비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 시식 식재료도 지역 농산물을 우선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연결. - 군 관계자는 월 1~2회 정기 장터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장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발언함.
	<p>□ 안양그린마루,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 운영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등 3~4학년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공유학교'를 운영 중임.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2차시로 진행되며, AI 등 최신 과학기술 교구를 활용한 체험 중심 수업으로 구성. - 첫 수업에서 학생들은 기획전시실 관람과 태양광 충전식 조명 키트 제작 실습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리를 학습함. 지난해 11월 환경교사 연수에서 논의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의 결과물로, 학교-교육지원청-체험센터 유기적 연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 - 관계자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며 환경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하며, 지역사회 연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제주도, 고유가 추경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탄소중립 실천 점검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고유가 대응 제1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비료 저감·탄소중립 실천·복지시설 에너지 개선까지 통합 점검함. 농업기술원의 실증 결과 비료 사용량 평균 35% 감축에도 수량·품질이 유지되는 성과 확인. - 히트펌프 보급, 전기차 양방향 충전 실증,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하라는 방침이 제시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선정으로 복지시설 'RE100+ 플랫폼 시범사업'도 추진 중. -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난방비를 줄이고 복지시설 문제도 함께 풀 수 있다”며 전체 복지시설로의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함.
	<p>□ 고양특례시, 지구의 날 맞아 소등 행사 및 서예 퍼포먼스 개최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가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시 전역에서 소등 행사를 진행함.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과 주요 건축물·랜드마크 조명을 동시에 소등하고, 일반 가정도 자율 참여 가능. - 소등 행사에 앞서 덕양구청 앞마당에서 '지구를 살리는 약속'을 주제로 서예가 금현 송이슬 작가의 필묵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이어 소등 기념식에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시 관계자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시민 동참을 당부함.
	<p>□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올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 주요 사업계획으로 연천군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발굴,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년스 구축, 주민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 대진대의 전문성과 연천군의 행정력을 결합한 실천 모델 구축이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미애 센터장은 “연천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만큼 탄소중립 실현 잠재력이 크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발언함.
	<p>□ 삼척시,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2026.04.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시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변화주간(20~25일)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우체국 사거리 일원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탄소중립 실천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함. 기후위기 심각성 홍보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유도가 목적. -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시민에게 에코백, 친환경 세제 등 홍보 물품을 제공하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홍보도 병행함. 22일 지구의 날에는 오후 8시 전국 소등 행사 참여를 집중 홍보할 계획. - 시민들의 자발적 전등 끄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
	<p>□ 성동구, 제5회 '하나뿐인 지구' 행사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6.04.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동구가 4월 22일 왕십리광장에서 '제5회 하나뿐인 지구' 행사를 개최함. 자원회수 작전지, 기술 훈련소, 에너지기동대, 작전본부, 정식대원입명소 등 5개 주제로 15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 우유팩·페트병·폐건전지 교환, 양말목 도어벨·천연방향제 만들기, 자전거 스티م 세척, '두 발로 만드는 솜사탕' 등 온 가족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와 기상기후 사진 전시도 병행. - 구 관계자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 의지를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평창군, 기후변화 주간 맞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진행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이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함.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에 발맞춘 자발적 참여 유도 프로그램 추진. - 캠페인 기간 중 '에코힐 카페'에서 텀블러 지참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2일 지구의 날에는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에서 '2026 지구의 날 환경 축제'를 개최할 계획.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 목표임.
	<p>□ 광명시,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 참여 단지 모집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가 '2026년 기후대응 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 참여 단지를 1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함. 에너지 사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설치, 소등 캠페인 참여, 재활용품 배출 감축, 탄소중립 주민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 6개 우수 단지를 선정. - 800세대 기준으로 구분하여 최우수 단지에 500~700만원, 우수 단지에 250~400만원의 포상금과 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총 25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은 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 탄소중립 교육 등에 활용 가능. - 최혜민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생활공간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도시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발언함.
	<p>□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3기 발대식 개최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와 원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상지대학교에서 '2026년 탄소중립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개최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기후재난연구실장의 특강, 임명장 수여식, 팀 구성 및 캠페인 사전 체험 등으로 구성. -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서포터즈는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온·오프라인 캠페인,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p> <p>- 맹순재 기후대응과장은 “서포터즈의 열정과 창의성이 원주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함.</p>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한·베트남, 원전·AI·문화 등 12건 MOU 체결로 협력 확대 (2026.04.22)</p> <p>-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럽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전력 인프라·디지털·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담은 1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AI·사이버보안 중심의 디지털 협력, 바이오·반도체·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p> <p>- 원전 분야에서는 한전과 베트남 PVN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되었으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금융 협력 MOU도 함께 맺어 신규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됨. 에너지저장장치·전력망 현대화 협력도 추진.</p> <p>-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룬 양적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밝히며,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양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p> <p>☐ 이 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조선·금융·AI·방산 협력 확대 합의 (2026.04.20)</p> <p>-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조선·금융·AI·국방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밝힘.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 25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목표 제시.</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협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강국인 인도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간에 인공지능·디지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 등 총 15건의 문건을 채택. - 중동 정세를 고려한 에너지 자원·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협력, 뭍바이 코리아 센터 조성을 통한 문화 협력,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됨.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data-bbox="304 792 1476 831">□ 경북도, AI 기반 데이터센터 탄소저감 기술 개발 국책사업 선정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탄소 인지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운영 아키텍처 및 통합 운영 기술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됨. 총사업비 110억원(국비 101억원) 규모로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경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센터가 실증 거점으로 활용됨. 탄소 인지 아키텍처 실증, 디지털 트윈 연계 검증, 탄소 정보 수집 인프라 실증, 표준화 등 4개 분야 연구 추진. - 박시균 메타AI과학국장은 “경상북도는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테스트베드 구 <p data-bbox="304 1435 1476 1473">□ 관악구, AI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대 (2026.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정보과를 중심으로 AI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함.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한 상태. - '2026년 관악구 인공지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기반 조성, 지역사회 활용 역량 강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산의 3대 전략 아래 행정·안전·복지·교육 등 4개 분야 총 28개 사업을 추진함. - 구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 의사결정과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환경 확대 방침을 밝힘.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기보, '넷제로멤버스'에 엘파워텍 선정하여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성과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기보 넷제로 멤버스'에 엘파워텍을 선정하고 서울 서초구 녹색기술금융센터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함.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탄소감축 기여등급 1등급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 대상 프로그램. - 엘파워텍은 고효율 변압기 제조 기술 기반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여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IoT·AI를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매출의 약 80%에 달하는 강소기업임. - 기보는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기술평가료 면제, 넷제로리포트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우수 녹색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p>☐ 축산물품질평가원, 창립 37주년 맞아 탄소중립·안전 경영 선포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세종 본원에서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열고 탄소중립과 안전 경영 실천 의지를 선포함.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을 공개하고,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 및 무재해 사업장 실현 방침을 확립. - 유공자 표창, 식목 행사, 청사 주변 및 제천 인근 플로깅 활동 등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도 병행하며, 유통 관리 기능을 넘어 친환경·안전 중심 기관으로의 체질 전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 - 박수진 원장은 “탄소중립과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 신뢰를 높이고 축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발언함.
	<p>☐ KTR, 산업단지 MRV 플랫폼 검증 업무협약 체결 (2026.04.16)</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과 '산업단지 MRV 플랫폼 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함.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 - KTR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통합운영센터(TOC+)' MRV 플랫폼을 통해 생산되는 생애주기평가(LCA) 보고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며,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 사업도 공동 발굴할 계획. - 김현철 KTR 원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힘. <p>□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에 탄소중립·중대재해 반영하는 ESG 고도화 착수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용평가체계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용역'을 총 49억9100만원 규모로 발주함. 사업 기간은 1년 2개월이며, 7월 중 계약 체결 후 착수 예정. - 차주의 탄소중립 정책, 좌초자산,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 비재무 리스크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투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 신설과 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업 범위에 포함됨. - 업계에서는 ESG 요소가 신용평가에 반영될 경우 기업의 금리나 여신 조건에 간접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지방기관	<p>□ 대구지방환경청, 통합허가 사업장 대상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개최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방환경청이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대구·경북지역 통합허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2026년 통합허가 사업장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함. 환경관리 수준 제고와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촉진이 목적. -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정기검사 계획,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준, 변경허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신고 실무 절차 등을 다루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여 공장 지붕형 태양광·수열에너지 공급 사례 등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소개.</p> <p>- 조은희 청장은 “사업장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통합허가 사업장의 적정 환경관리 및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함.</p>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롯데백화점 전주점, 자연보호 전북자치도협의회와 탄소중립 실천 협약 (2026.04.22)</p> <p>-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자연보호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자연환경 보전 및 전북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환경정화·자연보호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자원순환 활동 확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홍보, 환경교육·ESG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내용.</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원의 자연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자연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최동희 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함. - 최동희 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백화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p>□ 애니텍, 인도 JK Cement와 탄소중립 MOU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공식화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기업 애니텍이 인도 백색시멘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JK Cement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시멘트 생산 부산물인 CBS-dust를 CO₂ 직접 포집·활용(CCU)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자원(고순도 염화칼륨)으로 전환하는 설비 구축 및 사업화를 공동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완료한 검증된 기술력이 기반이 되었으며, 인도 내 추가 시멘트 기업과의 후속 계약 및 프랑스 기업과의 기술 검증도 진행 중. - 애니텍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기술이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대규모 기술 수출을 통해 글로벌 그린테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함.
	<p>□ 한·일 레미콘업계, 판매구조·탄소중립 등 산업 현안 공동 논의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가 서울에서 ‘2026 한·일 레미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함. 지난해 11월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 판매구조·산업 구조조정·원자재 수급·기술혁신·탄소중립 대응·인력 수급 등 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 - 일본의 공동판매 운영 사례, 납품대금연동제, 전국통합품질관리제도(적마크) 등을 공유하며 국내 제도와와의 차이를 비교·검토함.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 모델 구체화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조웅 회장은 “MOU가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사이토 쇼이치 회장도 “기술·제도·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p>□ 현대로템, 철도차량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대응 가속 (2026.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능형 에너지 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IEOS)을 개발함. 선로 조건과 운행 환경을 반영해 구간별 최적 속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가감속을 줄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술. - KTX-이음 강릉선 실증에서 서원주~강릉 구간 12.2%, 강릉~서원주 구간 10.9%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인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념 적용으로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도입 가능. - 현대로템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산학협력을 통해 철도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성과“라고 밝힘.
	<p>□ 현대백화점그룹, 용인에 '탄소중립의 숲' 확대 조성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함. 2022년부터 총 25.5ha 규모의 산림을 조성 중이며, 2029년까지 나무 4만 그루 식재가 목표. - 제1호 숲(백암면, 16.5ha, 3만 그루)에 이어 제2호 숲(이동읍, 9ha)에는 지난해까지 약 6000그루가 식재되었고, 올해 추가 6000그루를 심을 예정. 2027년까지 1호 숲의 안정화를 위한 풀베기·덩굴 제거 등 숲가꾸기 작업도 지속. - 운영식 부사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활동 확대 방침을 밝힘.
	<p>□ 에니켄·신호산업, 재활용 가능 컵라면 종이용기 개발로 탄소중립 기여 (2026.04.16)</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전문 기업 애니켄과 용기성형 전문 기업 신호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해 '재활용 가능 방오성 초발수·발유 종이용기'를 공동 개발함. 기존 PE 코팅 컵라면 용기의 재활용 불가 문제를 특수 신소재 이중 코팅 구조로 해결. - 1차 코팅층은 해리 공정 시 섬유와 쉽게 분리되어 자원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2차 코팅층은 고온 조리에서도 유지되는 초박막 방오 기능을 수행함. FDA 안전성 기준 통과, 등록특허 3건, 녹색기술인증 보유. 일본 주요 컵라면 제조사와 수출 상담 진행 중. - 양사 관계자는 “전량 소각되던 폐기물을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의 새로운 표준 정립 의지를 밝힘. <p>□ 애플, 재활용 소재 30% 달성하며 탄소중립 향한 혁신 지속 (2026.04.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이 2025년 출하 전체 제품 소재의 30%를 재활용 소재로 구성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년 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며, 2030년까지 전체 사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 - 100% 재활용 코발트·희토류 배터리·자석, 재활용 금·주석 회로기판, 100% 섬유 기반 포장재 전환 등을 완료함. 캘리포니아 첨단 회수 센터에서 새로운 전자기기 재활용 라인 '코라(Cora)'와 머신 러닝 기반 감지 시스템 '아리스(A.R.I.S.)'를 공개. - 팀 쿡 CEO는 “야심 찬 목표가 혁신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발언하며, 지구의 날을 맞아 제품 재활용 참여 고객 대상 에어팟 등 10% 할인 행사도 진행.
대학교	<p>□ 한국교통대, 의료 분야 탄소중립·ESG 인재 양성 협약 체결 (2026.0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대가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자원순환환경센터 등 3개 기관과 '보건·의료 분야 탄소중립·ESG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의료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ESG 경영 확산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사회 기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지속가능 발전 기여가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의료원 · 건국대 충주병원 재직자 대상 ESG 교육에서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교수진이 ESG 경영 이해와 환경호르몬 대응 방안을 강의하며, 의료 현장 환경 오염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 - 보건 · 의료 분야 재직자 대상 탄소중립 · ESG 실천 교육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input type="checkbox"/> 바이오차, 탄소중립 농업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차(Biochar)가 농업 분야의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바이오매스를 산소 제한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생산되며, 초기 바이오매스 탄소의 약 20%를 수백 년 이상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탄소 격리 능력이 핵심 차별점. - 2021년 IPCC 6차 보고서에서 공식 탄소 저감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구글이 총 20만 톤의 바이오차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는 등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바이오차 시장은 연간 15.4% 성장하여 2031년 약 63억 달러 규모로 전망. - 다만 일반 비료 대비 높은 생산원가, 비료 공정 규격 불일치, 가축분뇨법 내 법적 근거 미비 등이 한계로 지적되며, 현장 밀착형 가격 보조와 실증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평가.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input type="checkbox"/> AI 시대 원자력의 역할 논의, '2026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 부산 개막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회 '2026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여 24일까지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됨.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Nuclear Energy for an AI-powered World)'을 주제로 19개국 155개 기관이 참여하며, 420개 전시 부스가 운영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원자력협의회(PBNC)를 14년 만에 국내에 유치하여 1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됨. 체코 산업통상부의 한국 원전 도입 전략 발표, 미국 페르미 뉴클리어사의 11GW 원전 프로젝트 사례 공유 등 기조강연 진행. - 김성수 과기정통부 실장은 SMR 특별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 합작 R&D 실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p>□ 관광벤처 100곳 선정, AI·K-컬처 접목 혁신 서비스 부상 (2026.0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1500여 건 접수(전년 대비 35.2% 증가), 15대 1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총 10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함.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제공. - AI 접목 관광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내며, 아동 동반 동선 최적화 '하노라 키즈트리프', 30개 언어 호텔 AI 컨시어지 '제로바타', 숙박시설 운영 자동화 '키피' 등이 선정됨. K-팝 팬 맞춤형 투어, 사찰 러닝, 럭셔리 캐빈 자연휴양 등 K-컬처·로컬·웰니스 관광 아이템도 다수 포함. - 민정희 관광기업창업팀장은 "AI 기술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접목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며, 그간 1800여 개 기업 발굴, 5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밝힘.
	<p>□ 네이버, 인도 최대 IT서비스 기업 TCS와 AI·클라우드 협력 MOU 체결 (2026.0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가 인도 타타그룹 IT 계열사 TCS와 AI·클라우드·B2C 서비스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며 14억 인구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인도 AI 시장은 2031년 319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이며,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371억 루피를 AI 생태계 구축에 투입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는 크래프톤·미래에셋과 함께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니콘 그로스 펀드 (UGF)'를 조성하여 인도 고성장 기술기업에 투자하기로 함.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의 서비스 생태계·데이터 자산을 결합하여 AI 전환(AX)·디지털전환(DX) 분야 신사업 기회 창출 기대. -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UGF는 인도를 중심으로 AI·핀테크·콘텐츠 등 고성장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3사의 핵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p>□ 오픈AI, 노르웨이 '스타게이트' 사업에서도 이탈, MS가 데이터센터 계약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미국·영국에 이어 노르웨이에서 추진하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도 한발 물러남. 영국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엔스케일이 나르비크 230MW 규모 데이터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엔비디아 '베라 루빈' GPU 3만 개 이상이 도입될 예정. - 오픈AI는 텍사스 애빌린 '스타게이트' 확장 계획 철회, 영국 '스타게이트 UK' 잠정 중단에 이어 핵심 인력 3명이 메타 AI 인프라 조직으로 이동함. 4분기 IPO를 고려한 재무 전략으로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됨. - 오픈AI 측은 “노르웨이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 중“이라며, MS '애저' 클라우드를 통한 연산 용량 임대가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을 밝힘.
	<p>□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 '스팟', 구글 제미니AI 로봇틱스 탑재로 자율 행동 능력 확보 (2026.04.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이 구글의 로봇용 AI '제미니AI 로봇틱스'를 탑재하여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됨. 공개 영상에서 메모를 읽고 강아지 목줄을 잡아 산책시키는 장면이 시연됨. -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 바닥의 물기를 감지하여 알리거나 계기판을 찾아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등 위험 요인 탐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 AI 탑재로 단순 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행 로봇에서 자율 판단 로봇으로 진화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컬 AI 시대의 대표 사례로, 로봇이 현실 세계의 맥락을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시연한 것으로 평가됨.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AI 군사 활용의 위력과 한계 (2026.0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전쟁 6주째, 미군은 팔란티어 메이븐 시스템에 엔트로픽 AI 클로드를 결합하여 킬 체인 단계를 대폭 압축하고 1만3000여 개 표적을 파괴하는 등 AI 기반 전술적 성과를 거둠.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휴전과 협상에 나선 상황. - 미 원자과학자회보는 “AI가 전술적·작전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하게 만들어 전략적·정치적 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이란의 전력·권한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전략이 AI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됨. -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으로, AI가 전술·작전 영역에서 지휘관 판단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전략적 승리는 인간의 몫이며, AI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를 조화시키는 신 개념 전쟁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